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15
----------	------

발의연월일 : 2025. 1. 24.

발 의 자 : 천하람 · 주철현 · 김교홍  
이용우 · 이주영 · 김종민  
이준석 · 김상욱 · 정성호  
박희승 · 이인선 · 이개호  
김주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

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폐업·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본문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